

# 光州日뢖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533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6월 16일 2025년 7월 10일 목요일

# 熱바다魚저나

〈열〉

해를 거듭할수록 가혹해지고 있는 폭 염에 전남 수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관련기사 6면〉 올해도 고수온 경보 발령일이 보름이 나 앞당겨져 어가 피해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전남은 전국 양식 수산물 생산 량의 75%를 차지하고 있어 해양수산 생 대계 보호 기구 유치의 필요성도 커지고

9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서해와 남해 연안 일부에 고수온 주의보를 발효했다. 전남지역 고수온 주의보 발효 지점은 함평만과 신안임자도~효지도 등 서해안과 도암·득량·여자·가막만, 울돌목(해남), 임회(진도), 고흥 거금도~여수 남면 안도등이다.

고수온 주의보는 연안수온이 28도에 도달할 때 발효되는 것으로 고수온 예비 주의보(수온 25도)보다 심각한 조처다. 올해 고수온 주의보가 발효된 시점은 지 난해(7월24일)와 비교하면 15일 이르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점은 연안바다의 온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올 해의 경우 장마기간이 비교적 짧았고 지 구온난화에 따라 쿠로시오 해류에서 대 한해협을 거쳐 동해로 유입되는 대마난 류의 유입이 증가해 연안 수온이 빠르게 상승할 것이로 예측된다. 수온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진도냉수대가 약화한 것도 고수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고수온이 지속되는 기간은 길어지고 있다. 2023년 경우고수온 특보가 발효된 전국 양식 수산물 75% 전남 수산업 폭염에 비상 고수온 주의보 일찍 발령 우럭 등 양식업 피해 우려 도 "생태계 보존기관 유치"

날은 57일이었는데, 지난해의 경우 71일 ㄹ 느어다

전남지역 어가의 고수온 피해는 매년 증가세다. 2022년 고수온 피해액은 10억원에 불과했지난 2023년 218억으로 20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990억가, 2998ha에서 2582만마리가 폐사, 574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불과 3년만에 고수온 피해액은 58배 급증한 셈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양식 어가는 6309개로 1만9194ha 면적, 10억7400만 마리를 양식 중이다. 전남도는 전복(8억4100만 마리)과 넙치(4700만 마리), 조 피볼락(3800만 마리)을 고수온 취약어 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전복과 볼락은 수 온이 28도, 넙치는 29도를 넘어설 경우 폐사 가능성이 커진다.

전남도는 주의보 발령과 동시에 고수 온 종합상황실 가동에 돌입하는 등 비상 체계를 가동했다.

전남도는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 어가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수온 예찰 체계 를 매일 1회로 강화하고 '전남바다알리 미'를 통해 150개 해역에 대한 실시간 수 온정보를 제공 중이다. 또 백신과 면역증 강제, 수온 유지를 위한 펌프 구매 등 6개 사업에 462억원을 지원한다.

도는 고수온 재해가 발생하기 전 취약 어종을 조기출하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 침이다. 해양수산부, 지자체, 생상자, 유 통업계가 생산협의체를 구성해 산지가격 으로 수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남도가 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근본 적인 대책은 사실상 없다. 박민호 여수 화 태 어촌계장은 "바다에 얼음을 넣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자연재해를 사람의 힘으 로 막을 수 있겠느냐"며 "그나마 양식 품 종을 바꿔보려는 노력을 해보고는 있지 만, 수요가 없는 경우도 많고 가격이 맞지 않아 양식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일상화한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수산 기후변화 대응센터 설립 유치에 나섰다. 최근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말 양수산 기후변화 대응센터의 설립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나라 해양환경 변화와 어가 경영에 큰 피해를 유발하는 어업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적 대응 역량을 갖춘 범국가적 전문기관을 반드시 전남에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한국영상기자협회

尹,영장심사 출석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 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del>공동</del>취재단〉

### '항명' 박정훈 대령 항소취하·무죄 확정

해병특검, "공소권 남용"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 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 병대 수사단장(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9 일 취하했다.

상부의 압력에도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경찰에 이첩했다가 재판을 받아온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10월 군검찰에 기소된 뒤 약 1년 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이 특검은 이날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브리 핑에서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 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 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 사망사건을 초동 수사하고 해당 사건 기록 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 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공 소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 해다

이어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이미 1년 이상 심리 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상황에 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 특검의 발표 직후 법원에 항소취하 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소송 절차는 자동 종료 됐으며,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실 기의: /여하뉴스

폭염에 가축도 사람도 지친다

▶6면

번트 장인 KIA 김태군 "야구는 팀 스포츠" ▶18면

팔도 핫플레이스 - 경북 칠곡 '시호재'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강 신 대 학교 로 오십시오!!

### 광주지하철 2호선 1단계 도로공사 12월 22일 종료

### 혼잡구간 노선도 정비

광주도심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교통안 전을 위협하던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도 로공사가 올해 12월 22일부로 종료된다. 〈관련기사 3면〉

하지만 북구·광산구를 관통하는 도시 철도 2호선 2단계 공사가 진행중인 상황 에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까지 예정돼 '교통대란' 최소화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 적이 나온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 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의 토목 공 정률이 92% 수준이며 공사구간 도로는 42%를 개방했다. 이어 올해 12월 22일 부터 도로를 전면 개통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당초 계획보다 공사가 장기 화됨에 따라 시민 교통불편을 최소화 하 기 위해 신속대응 도시철도 태스크포스 (TF)팀을 운영해 도로 정비에 나선다.

광주시는 당초 1단계 공사구간 도로 개 방 완료시점을 지난달로 예고했지만, 6개 월 가량 연기됐다.

도로 전면 개통시기가 늦어진데는 일부 공사구간(금호지구,백운광장,광주역 뒤편)에서 발생한 대량의 경암(硬巖)과 지장물(상하수도관이나 전기배선 등) 때 문이라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지난해 11월 이후 15t 트럭 기준 3700 대분의 암석이 발견됐지만, 기존 '발파' 공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쪼개기' 공법으 로 공사를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시험발파 결과 주변의 주 택과 상가, 도시가스관에 대한 소음·진동 허용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암반에 구 멍을 뚫고 유압기를 사용해 틈을 만들고 굴착기로 쪼개면서 파쇄하는 방식으로 공 사를 할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병호기자 jusbh@kwangju.co.kr

## 한율

시카보다 4배\* 강한 쑥시카™진정의 힘으로 속건조로 생긴 수부지 트러블\*\* 종결 \* 자사 병풀추출물 대비 진정 효능, in-vitro 시험 결과

\*\*\* 건조, 거칠어짐, 외부 자극으로 인한 일시적 붉은기